

'희망' 2015 신년 인터뷰

⑤ '43년 공직 외길' 前부총리 고향 봉사-전윤철 광주비엔날레재단 이사장

“광주가 문화예술 발원지 역할해야”

43년만의 귀향이다. 전윤철 광주비엔날레재단 신임 이사장은 4개 정부에서 7차례나 차관급 이상 정부직을 지내며 공직 사회에 뚜렷한 족적을 남긴 인물이다. 업무능력 외에도 '전빛대'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소신과 규율이 뚜렷하다. 지난 2008년 감사원장으로 공직 생활을 마감한 그는 2013년 고향인 목포에 세워진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이사장에 이어 광주비엔날레재단 이사장직을 맡게 됐다. 전문 분야인 재정 및 경제와 달리 문화 기관인 광주비엔날레는 그에게 다소 부담이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에서 일했던 경험을 살려 이제는 고향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생각에 결단을 내렸다. 공직 생활 당시 직원들 공부를 혹독하게 시켰다는 그는 이사장 선임 후 국립현대미술관 등을 방문하고, 미술 관련 서적도 읽는 등 새로운 분야를 알아가고 있는 중이다. 출근 첫날 설레고 긴장돼 잠을 설쳤다는 그를 13일 취입식 후 만났다.



프로필 ▲1939년 목포 출생 ▲서울고, 서울대 졸업 ▲제4회 행정고시 합격 ▲제13대 수상청장 ▲제10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제2대 기획예산처 장관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 ▲제5대 재정경제부 장관, 경제부총리 ▲제19대, 제20대 감사원장 ▲경원대·조선대 석좌교수 ▲컨텍스(경기고 양시 컨벤션센터) 고문 ▲김대중노벨평화상 기념관 이사장

대답=김미은 문화1부장

- 처음엔 비엔날레 이사장직 제안을 고사했다고 들었다.
▲나는 미학적 담론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미술사를 공부한 사람도 아니다. 대학에서 법을 공부만 했고, 외길 공직 생활을 했다. 처음에는 미술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어 쉽게 결정을 하지 못했다. 180도 다른 업무다. 하지만 43년을 공직생활을 하면서 한국 경제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는 알고 있다. 세계화 시대에는 60~70년대 경제 패러다임으로는 먹고 살 수 없다. 세계화에 접근하고 국제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문화 접목을 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 음악이든 미술이든 문화 예술을 산업과 접목하면 국격도 높아진다. 그런 차원에서 내가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해보겠다. 고향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보자는 생각도 있었다.
- 광주 비엔날레가 나아갈 방향은.
▲문화예술에서 광주가 발원지 역할을 해야 한다. 세계의 애호가들이 광주비엔날레를 알 수 있도록 디지털 작업을 해서 우리의 것을 알리고, 담론을 만들어 자랑할 수 있는 디지털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 예술적 DNA를 가진 광주를 포함한 호남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 지역 인재 육성 등 분야에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새로운 인재 발굴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할 문제다. 외국 작가들과 연계 모색과 후계자 양성은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걸 위해서도 정부의 재정 지원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세계화를 지향하면서도 지역 미술인들의 참여 통로를 만들어 숙된 표현으로 우리나라, 광주에 남는 행사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 생각하고 있는 구상들이 있다.
▲미술의 영역은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다. 이런 걸 자산으로 해서 미술에 대한 이해와 저변 확대를 해가면 좋겠다. 최근 윤장현 광주시장에게 이야기한 게 있다. 광주비엔날레가 열리는 전국은 물론 외국에서도 오게 해야 한다. 앞으로 관광산업이 기간 산업이 될 수

됐다. 여기서 독특한 소프트 웨어를 개발하고 광주비엔날레를 포함한 광주의 문화적 하드웨어를 묶어 스마트웨어를 만들어내야 한다. 앞으로 미술단체 중심으로 관련 단체 등 하드웨어를 묶어서 TF를 만들 계획이다. 이런 것들을 잘 엮어서 광주를 문화시설의 메카로 만들어 사람들이 찾아오게 해야 한다. 윤 시장에 계기를 만들어 달라고 했다. 그러면 중앙 정부든 기업 이든 어디든지 달려가 인적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 열심히 될 생각이다.
-문화 도시, 문화 메카는 어떻게 만들어 진다고 생각하냐.
▲문화 도시라는 게 하드웨어, 소프트 웨어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다. 감동이 있는 스토리 텔링이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그걸 즐기고 사랑하는 품격 높은 국민이 있어야 하고 이런 부분은 바로 교육과 연결된다. 또 문화를 지원하는 메세나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어야 한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기업이 돈을 버는 건 국민이 있어서 가능하다. 기업은 이윤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캠페인은 비엔날레 뿐 아니라 언론도 함께 나서야 하고 무엇보다 기업들의 마인드가 변해야 한다.
-공직에 오래 있었다.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은 뭔가.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되면서 지방분권이 라는 말이 많이 나온다. 지방분권은 지자체 공무원들이 지역 개발과 관련된 청사진을 그려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최근 지방 공무원들은 광주에서 비엔날레를 하니 부산도 하고, 저기도 체육관을 지으니 우리도 지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지역의 유니크한 특성을 살려야 한다. 광주는 그런 점에서 문화 쪽을 키우고, 어떻게 스토리를 만들어 홍보할 것인가에 대해 무게를 두어야 한다. 중앙 정부가 만들어 놓은 프레임에 지방 정책을 끼워 맞추는 것도 문제다. 지방 공무원이든 중앙 공무원이든 준비된 생활을 해야 하고,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최근 관피아 문제가 불거지면서 공직자들이 남작 앞드려 일을 안한다. 집에서 설거지를 하면 그릇을 깨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다. 요즘은 그런 게 두려워 아예 물에 손을 담그지도 않는다. 구정물에 손 넣기 싫어하고 설거지 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집안은 망한다. 이런 공직자 사회도 마찬가지다.
-새정치민주연합 국정자문위원으로도 위촉됐다. 어떤 이야기들을 할 생각인가.
▲오는 전화를 받았다. 16일 열리는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43년 간의 공직 생활 경험이 필요하다고 하면 야담이든, 여담이든 참여할 계획이다. 나는 정파 문제는 잘 모르는 사람이다. 하지만 어떤 정권이든 국가 경쟁력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정책 조언을 하겠다는 원칙은 있다. '플루타르코 영웅전'에 국민의 말만 들으면 국민과 함께 망하고, 국민의 뜻을 거스르면 국민에게 맞아 죽는다는 말이 있다. 단기적으로 국민에게 떡을 주려고 하는 인기영합 주의는 철저히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리=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경제도 산업도 문화 접목이 화두
예술적 DNA로 문화담론 만들어야
기업체·중앙정부 인맥 적극 활용
비엔날레 광주에 남는 행사 돼야
접시 깨는 공직자 있어야
그 조직 제대로 돌아가

있다. 문화와 불거리, 느껴져라, 생각할 수 있는 공간, 먹을거리까지 모두 연계해야 한다. 9월달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개관한다. 이제 하드웨어는 많이 준비

나주·상주시 조선감영 관광자원화 사업 용역 착수

전남·경북 상생협력 7대사업 본격화

영호남 화합을 위한 전남도·경북도의 상생협력 7대 과제가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돼 주목된다.
오는 19일 경북도청에서 전남도, 나주시, 용역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조선감영 역사고도 관광자원화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착수 보고회를 갖는 등 양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전남도·경북도의 상생협력 7대 시범사업이 본격화된다.
전남도는 지난해 11월 동서화합포럼에서 전남도는 박정희 산업단지, 경북도는 김대중 공원을 조성하기로 하는 등의 상생과제를 선정해 바 있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양 자치단체는 상생협력 7대 과제를 선정해 올해부터 조선감영 역사고도 관광자원화, 백신글로벌산업화 기반구축, 국토 끝섬 주민 간 교류, 농특산물 장터 운영, 공무원 교류 등을 추진한다.
또 생활체육 교류, 전직 대통령 이름 활용사업, 문화교류 및 조선감영 역사인문 포럼, 시·군 자매결연도 포함됐다.
시범사업 가운데 우선 조선감영 역사고도 복원 사업을 본격 진행한다.
이 사업은 올해부터 10년간 1000여원을 투입해 경북 상주시와 전남 나주시의 조선감영 및 읍성, 향교, 산성, 역사길 등을 복원하는 내용이다. 용역 착수를 위해 양 시가 1억 원씩 예산을 투입했다. 지역 정체성을 회복하고 쇠락한 지방도시를 전통문화 도심으로 재생시킨다는 목표다.
용역에는 조선감영 현황 및 변천과정, 국내외 유사사례 조사·분석, 역사고도 복원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양 도는 용역을 거쳐 복원과 관광상품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또 올해 조선감영 역사인문 포럼을 열고 재정투융자심사를 거쳐 공동으로 국비 지원을 건의하기로 했다. 나머지 6개 시범사업 추진에도 힘을 보탠다. 내년부터 5년간 3300여원이 투입되는 백신산업기술진흥원 설립·공공백신 선도시스템 구축 등 백신글로벌산업화 사업을 공동 유치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올해부터 10년간 국토 끝섬인 울등도와 거제도 주민들이 상호 방문하도록 하고 문화교류를 실시할 예정이다. 박정희·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름을 활용해 산업단지·공원·기념관을 만드는 사업도 구상하고 있다. 전남도와 경북도는 각 도 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뒤 협의해 이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남 22개 시·군과 경북 23개 시·군이 자매결연을 하고 지역 농특산물 공동장터 운영, 1일 명예 도지사, 공무원 친선체육대회 및 교류 파견 등에 나서기로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조선감영 역사고도 관광자원화 사업을 동서화합 선도 모델로 성공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와 전남도를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 26명으로 이루어진 ‘동서화합포럼’은 지난 2013년 12월2일 국회에서 첫 모임을 갖고 영·호남 갈등을 종식하고 화해와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상생과 발전을 이루기 위해 발족했으며, 지난해 11월4일 다섯번째 모임을 가졌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영호남 연결 경전선 철도 목표~보성 구간 공사 9년만에 재개

예산부족을 이유로 사업이 중단됐던 경전선 보성~목포 임성리 철도건설공사가 9년 만에 재개된다.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는 13일 “영호남을 연결하는 남해안 철도망 건설사업 중 2006년 중지됐던 보성군 미력면~목포시 임성리 구간 82.5km에 대한 건설공사를 9년만에 다시 시작한다”고 밝혔다.
우선 보안 설계를 올 하반기 발주하고 본격적인 공사는 내년이나 가능할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 1조3000여원의 사업비가 들 것으로 예상되는 보성~목포 임성리 구간이 오는 2020년까지 완공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무엇보다 급선무가 될 전망이다.
호남본부 관계자는 “올해 52억원이 배정됐으며, 하반기에 예산을 추가 확보해 2020년까지는 공사를 마칠겠다”고 말했다.
보성~목포 임성리 구간이 완전개통될 경우 현재 목표에서 부산까지 소요시간 3시간 40분, 열차로 7시간35분이 소요되던 이동시간이 열차의 경우 2시간30분으로 단축돼 영호남 지역간 단절 해소, 남해안 관광 활성화, 물류비용 감소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아시아예술극장 개관시즌 커뮤니티 작품 제작 공모

아시아예술극장은 2015년 9월, 한달 간 개관축제를 진행하고 10월부터는 개관시즌을 운영합니다. 시즌 무대에 올릴 작품 중 일부를, 예술극장이 자리잡고 있는 전라, 광주 지역 예술가 분들과 제작하고자 합니다. 광주 커뮤니티 작품 제작안을 공모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시아예술극장의 미션
예술극장은 제작 극장으로 예술가를 중심에 두고 동시대 예술 작품을 제작

광주 커뮤니티 작품 제작 공모 선정
총 4편, 광주 예술인 제작 혹은 작품 제작 방식 제안

동시대성이란
◆오늘날 사회, 문화, 예술 등에 대한 “고정관념에 문제제기를 던지는” 예술가 자신만의 분석과 비전
◆이러한 예술가가 자신만의 관점과 비전을 관객과 공유하고자 하는 태도
◆이러한 예술가적 관점과 비전에 부합하는 새로운 예술적 표현법의 모색과 성찰

- 1. 지원신청자격**
전라, 광주에서 1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라, 광주를 근거지로 활동하는 단체 또는 개인
- 2. 지원대상**
◆공연되지 않은 신규 창작 작품
◆광주 정신, 전통을 동시대의 형식으로 제작, 동시대와 접속하는 작품, 다나이가 국제적으로 소통 가능한 작품
◆사회전반 및 문화·예술에 대한 자신만의 관점이나 태도를 보여주는 작품
※ 연극, 무용, 음악, 영화, 영상, 퍼포먼스, 장소특정적 퍼포먼스, 설치-퍼포먼스, 게임 등 매체에 국한되지 않음
- 3. 진행과정 및 결과물**
◆1단계 워크숍
◆2단계 프리젠테이션 (영상, 부분 쇼케이스 등)
◆3단계 작품 공연
- 4. 추진 절차**
▼작품 제안서 제출
▼심사서류 심사 및 인터뷰 심사
▼작품 제작 1단계 워크숍
▼2단계 프리젠테이션
▼공연 (2015.10 / 2016.3)
- 5. 공모일정**
① 14년 11월 공모 설명회
② 15년 1월 20일 작품 제안서 마감 (2015년 1월 20일(화) 18:00 접수분까지 유효함)
③ 15년 1월 말 서류 및 인터뷰 심사
④ 15년 2월 초 선정 결과 발표
⑤ 15년 2월 중 계약체결 및 제작 계약금 지급
⑥ 15년 2월 ~ 작품 제작
⑦ 15년 10월 ~ 16년 5월 작품 공연
- 6. 제작비 및 지원 사항**
① 제작비 최고 5천만원
· 작품에 따라 이후 결정
② 지원 사항
· 공연장 제공
· 극장보유기자재무상대여
· 공연기술인력 일부 지원 (프로젝트별 기술감독과 협의후 결정)
- 7. 지원심사 기준**
◆ 동시대성
· 동시대 예술의 형식을 갖추고 있는가
· 작가만의 관점이나 태도가 있는가
◆ 제작 가능성
· 제안서에 기재된 계획은 구체적이고 충실한가
· 작품제작을 충실히 실현하기 위한 계획이 되어 있는가
· 소요예산은 타당한가
◆ 제작 역량
· 단체(개인)의 사업수행능력이 있는가
· 단체(개인)의 예술적 기량이 어떠한가
- 8. 제안서 제출 방법**
제안서 소정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예술극장 메일로만 접수 (asianartstheatre@gmail.com)
- 9. 제안서 주요 내용**
· 단체(개인) 소개서
· 작품의도 및 내용
· 동시대성 및 새로운 태도, 관점 제시 내용
· 예측에 근거한 예산 규모
· 제안서 양식은 예술극장 홈페이지 (asianartstheatre.kr)에서 다운로드
- 10. 문의**
아시아문화개발원 예술극장사업팀
asianartstheatre@gmail.com
062 410 3636